

사회

영장 발부율 전담판사 68%·주말 당직판사 84%

법관마다 제각각... 사법 불신 우려

광주지법... 검·경, 발부율 낮은 판사 회피도

#41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보해 지족은행사건'의 주요 피의자이자 대주주인 임모(64)씨는 보해지족은행 유상증자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면...

27일 검찰이 재청구하자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즉시 발부했다. 법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 구속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 형사 재판에서 영장 발부나 기각이 객관성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보해지족은행으로부터 차명 차주를 내세워 약 160여원을 대출받기도 한 임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8월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하루만인 4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60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반면 B판사는 91건에 그쳤으며 양자간 발부율은 14%포인트 차이가 났다.

격주로 근무하는 이들 영장전담판사들의 업무 처리량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는 지나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처럼 법관마다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기준이 달라지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에 차이가 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장이 여전히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판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판사마다 다를 수 있겠다. 그 외 판사들은 공휴일 당직 근무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들의 영장 기각 건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 간 상호 협의, 민간위원 심의 등을 거쳐 '같은 범죄'에 대한 '다른 결정'을 막아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37건 중 37.8%인 14건을 예초 기각을 결정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됐으며, 재청구까지 수사 보장이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검·경의 입장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곧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이 여전히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런 영장발부율이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실행 가능성이 높을 때 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율에서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해학생 용서하고 싶어도

먼저 간 아들이 떠올라..."

'시망 중학생' 광주 아버지-대구 아버지 통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란 이런 것일까. 지난해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중학생들의 아버지들이 전화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지난달 29일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을 잃은 광주의 아버지 송모(46)씨는 1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희생당한 중학생 아버지 권모(48)씨와 5분여간의 전화통화를 갖고 서로를 위로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대구 유족과 통화로 서로 답답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 통화는 광주 학생의 아버지 송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구 중학생의 아버지 권씨에게 통화를 요청해 성사됐다.

두 아버지는 또 이번 통화를 계기로 서로 아픔을 함께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씨는 전화통화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그대로 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가해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양측 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다 이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에 받은 충격에서 아직까지 헤어지지 못한 듯 했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쪽의 유족은 모두 아직 가해학생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권씨는 "아직 가해학생 가족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씨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더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도 많지 않은 아들이 먼저 떠올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82) 김중두



하차 승객 부주의 시망

버스기사 집행유예 2년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5일 "하차하던 승객을 부주의로 사망하게 한 마을버스 운전사 정모(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시47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관도 3차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차한 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 버스에서 떨어리던 홍모(여·73)씨를 도로에 떨어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홍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4일 만에 숨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폭력 학생부에 남긴다

3월부터... 고교·대학 입시 자료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중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고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연희뉴스

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고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연희뉴스

"순창 소 아사 농장 동물 학대 없었다"

전북도는 육우 20마리가 굶어 죽은 순창군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축산당국은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농장을 방문해 조사했으나 거의 정상적으로 사료를 주고 있었다"면서 "소를 고의로 굶거나 하는 등의 동물 학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료가 부족하지만, 농장주가 제때 급식하고 있었다"면서 "농장에서는 구제역 등에 대비해 석회까지 뿌리는 등 축사관리도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



김도한(28·사진)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김씨는 이미 붙잡힌 자신의 친형 김모(33)씨와 함께 지난 7월 오전 10시 54분께 북구 오치동한 금은방에 침입,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목격자, 반지 등 4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수배된 김씨는 175cm 가량의 키에 마른 체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술취해 주정앞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만취한 상태에서 육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술집 입구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종업원까지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44)씨는 지난 14일 밤 10시40분께 광주서 서구 양동 모 주점 입구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종업원 A(36)씨를 폭행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중 청소년 고싸움놀이 체험 지난 14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전수관에서 남구의 문화교육특구 지정과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청소년 고싸움놀이 민속캠프'에 참가한 한·중 청소년들이 고싸움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천 앞바다서 유류선 폭발 두동강

5명 숨지고 6명 실종

15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쪽 3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유류운반선 4191t급 두리3호(선장 안상원·57)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로 선체가 두동강 난채 반쯤 가라앉았으며 항해사 이진수(22)씨와 미안마 선원 뱃사람인(38), 묘민자우(32)씨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1 등 항해사 유준태(52)씨 등 6명이 실종됐다. 이 배는 인천항을 떠나 충남 서산의 대산항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한국인 선원 11명과 미안마 선원 5명 등 모두 16명이 타고 있었다. 선장 안씨 등 5명은 사고 직후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구조됐으나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희뉴스

해경은 생존선원들의 진술과 사망자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점으로 미뤄 외부충돌이 아닌 내부폭발로 잠정 결론지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선체(전체 길이 105m)의 4분의 3 정도에 달하는 갑판 아래 부분에 대형 유류탱크가 위치해 있어 내부폭발로 이어질 경우 선체가 두동강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에는 벵커C유 80t과 경유 40t이 적재돼 있으나 선미에 있는 유류탱크가 훼손되지 않아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리3호는 대산항에서 선적한 휘발유 6500t을 인천 남항에 있는 SK부두에 하역한 뒤 이날 오전 6시30분 인천항을 떠나 대산항으로 돌아가던 중 광음과 함께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뉴스

해병2사단 총기난사 상병 사형 선고

범행 공모 이병 징역 20년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지난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날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연희뉴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 정 이병은 이날 판결 후 항소,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을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연희뉴스

Advertisement for Hanbitgosi Academy. Text includes: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한빛고시학원', '개강: 2월1일',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